

# 개구리 '핑'과 스승 '부엉이'가 만들어 가는 가슴 뛰는 삶의 여정!)

- 멘토링으로서의 교수법에 관한 단상(斷想) -

유 영 만 부센터장(교육공학과 교수)

본래 핑(ping)이라는 말은 총알이 '핑' 하고 날아가는 의성어를 말한다. 이 책에서 핑이라는 말은 단순히 총알이 날아가는 의성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꿈을 향한 도약을 의미한다. 현실을 박차고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꿈을 향해 자신의 몸을 세상에 던지는 것이다. 또한 꿈은 꾸지만 꿈을 향한 도약의 여정을 실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에서 전해주는 "실행이 곧 존재"(To do is to be)라는 깨달음은 의미심장하다. 모든 꿈은 실행을 통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던지는 꿈의 여정은 장밋빛 뿌려 놓은 탄탄대로가 아닐 수 있다.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난관과 장애가 부딪힐 수 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여정은 우선 변화를 시도해야겠다는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 수 있는 용기가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핑의 멘토로 부엉이가 등장하는데 멘토링으로서의 교수법을 생각하는 중요한 화두를 많이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선택한 길에 아무 장애물도 없다면, 그 길은 그 어디로도 당신을 데려가주지 못한다. 내가 말하

는 길(Way)이란 눈에 보이는 그 길(Path)이 아니야. 이 주의 숨결로 가득 차있는 '영혼의 지도'란다." 또한 눈에 보이는 길(Path)에서는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태도가 곧 성취다(Attitude is altitude)"라는 부엉이의 가르침은 곧 내가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전적으로 성취결과의 높이, 즉 성취의 질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핑은 부엉이로부터 의도적인 삶이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행동이 바로 너 자신인 상태, '우연'(chance)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choice)에 의해서 살아 가는 삶을 깨닫고 힘찬 도약의 준비를 한다. 지금 상태를 벗어나 무엇인가 변화(change)하겠다는 선택(choice)과 실제로 그런 변화추진 행동만이 미래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chance)를 가져다준다. 변화하겠다는 선택과 결연한 감행만이 꿈을 낚아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엉이는 핑에게 "위험은 기회를 현실로 바꾸어 준다"는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하면서 자신이 감수해야 될 위험, 극복해야 될 장애물과 난관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1) 이 글은 '핑: 열망하고 움켜잡고 유명하라'(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 지음, 유영만 옮김, 웅진 윈스에서 출간)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간으로 역자의 의견을 진술한 글이다.

부엉이는 어느 날 개구리에게 꿈의 목적지인 황제의 정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능(talent)과 스킬(skill)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재능을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술이 되려면 배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재능은 문을 열어 줄 수 있다면, 기술은 그 문자체를 뛰어넘게 해준다는 것이다. 재능만 믿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기술로 개발하는 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꿈에 이르는 문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문을 통과하고 진정한 꿈의 동산, 황제의 정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기술은 탄생한다. 그리고 결국, 네가 가진 재능과 이 기술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무엇에든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는 것이다”라는 부엉이의 소중한 가르침을 핑은 가슴에 이로 새겼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걷기연습을 시킨다. 당연히 자신의 도저히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도자체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핑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없단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해 낼 꺼야. 말은 신념을 낳고 신념은 행동을 낳는단다”라는 말과 함께 의기소침한 핑에게 넘어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반드시 일어서고 말겠다는 칠전팔기의 정신을 보여준다.

마침내 걷게 되는 핑에게 “너를 걷게 한 그 신뢰가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생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믿음이야말로 실패와 좌절,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연료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 우선 자신을 잃는 여행과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돌려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벽의 그물이나 내면적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갈구하는 희망과 꿈의 메시지에 접하라는 것이다. 그래야희망의 저언덕 너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꿈의 평원에 도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길은 불타오르는 열정 가운데 있다. 가장 뜨거운 불 속에

서만이 가장 순도 높은 보배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꿈을 향한 열정과 매진하는 여정 속에서 꿈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스승으로서의 부엉이가 개구리에게 가르쳐 준 마지막 가르침은 흐름(flow)이라는 화두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흐름의 본질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점이다. 흐름의 파장과 곡선의 여정은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생명을 가꾸어 나가는 내재적인 과정이다.

주인공인 핑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꿈을 찾아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한 ‘선택’을 한다. 삶은 내가 의도한대로 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말을 되뇌이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발휘한다. 꿈을 잃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으며,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



유영만 교수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공학 석사 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Instructional Systems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로 부임하였고, 2003년부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